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7

I. 서론

전도자는 이 세상이 원리원칙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7장), 하나님의 통치 원칙인 인과응보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8장), 참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9장)들을 관찰하면서 미래의 세계 역시 ()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의 철학적 논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든다. 하지만 전도자는 아무리 이 세상의 먹고 마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이 만족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을 강조한다. 11장은 본서의 결론부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온 인생에 대한 견해가 총괄적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II. 본론(전도서 10:1-11:10)

전도자는 앞부분에서 지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지혜는 고작해야 매우 ()인 도움을 줄 뿐이며, 때때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폐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우매함과 지혜를 비교하며 지혜롭게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

다. 이어서 11장은 본서의 결론부가 시작되며 불확실성 안에서 찾는

()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많은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이 밝혀지는 날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한 비교(10:1-20)

지금까지 인생의 무의미함과 지혜의 제한성을 지적하였던 전도자는 앞장인 9장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삶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지혜로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여러 격언들(1-4절), 조언들(18-20절),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사들에 대한 고찰(8, 9, 15-17절), 또한 지혜와 우매함(1-3, 12-15절), 지도자(17, 20절), 장래에 대한 인간의 무지(14절) 등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폐단(10:1-7)

우매자가 근본적인 면에서 지혜자와 다름을 설명하며 ()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본 단락에서 삼입형태의 잠언이 언급된 것은 왕(통치자)의 우매함을 열거하기 전에 먼저 통치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1) 우매자의 본질(1-3)

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를 난처하게 만들(1)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파리가 종종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져 죽음으로 그 향기름으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나쁜() 것은 조금만으로도 좋은() 것 전체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②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음(2)

**지혜와 우매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뜻,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편’은 () ‘능력’, ‘보호’ 등을 암시하며 ‘왼편’은 () ‘연약함’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③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함(3)

**우매자는 자신의 ()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우매자는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든다.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2) 주권자에 대한 순종 권고(4)

①“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4)

**여기서 전도자는 주권자(통치자)가 노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의심을 불러오고 진노를 증폭시킨다. ②‘()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한다’→‘공손하다’는 것은 ‘누그러뜨리다’, ‘치료하다’의 뜻이 있다. 주권자가 부당하게 분노를 발하더라도 공손하고 ()하는 자세로 가질 때 큰 문제도 가볍게 해결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3) 우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5-7)

5-7절은 자그마한 문제도 큰 파멸로 몰아갈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①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음(5a)

②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임(5b)

***‘허물’은 부주의, 태만, 망각으로 인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실수’, ‘과실’을 뜻한다. 이 실수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주권자(통치자)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 지위에 앉음(6)

***‘우매한 자’는 지혜롭지 못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 ‘부자’는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명성이 높아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기대되었던 자를 말한다. 통치자가 그릇된 사람을 그릇된 위치에 앉힘으로써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린다는 의미이다.

④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터다님(7)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적 모순과 혼란을 유발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2) 우매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피해(10:8-15)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으로 이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특히 우매한 자들이 일상적인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피해와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초래되는 ()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1)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피해(8-11)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지녔으나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삶의 현실 때문에 그 믿음은 그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본 단락은 삶의 ()함과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①“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지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8)

****함정은 ❶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남몰래 구덩이를 파는 것, ❷짐승을 잡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한다. 구덩이에 사고를 당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리 주의 해도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담을 현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담을 허는 것, 또는 담을 수리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담을 허는 것, 어떤 목적을 가졌던지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임(9a)

③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할 것임(9b)

****돌을 떠내는 자(채석공), 나무들을 쪼개는 자(벌목꾼)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인생이 일상적인 삶 중에도 우발적으로 ()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④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10a)

****8,9절에서 말한 여러 사고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시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힘이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심령을 통해 역사되는 ()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할 것을 암시한다.**

⑤“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10b)

****지혜롭게 처신하면 그 지혜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⑥“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11)

****주술은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❶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한다. ❷세상적인 지혜는 분명한 ()가 있다. ❸뱀에게 물리고 나면 지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필요하다. 지혜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2) 우매한 자들이 말로 인해 당하게 되는 피해(12-15)

본 단락은 우매자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언어생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도자가 다른 데서는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며 결국 지혜도 의 지할 바가 아님을 언급했지만, 본 단락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잠언에 수록된 격언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①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킴(12)
 **말은 곧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이다.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는 덕스럽고 적절하며, 유용하고 호감을 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은 ()이 있고 그 지혜를 듣는 자에게 큰 ()을 준다. 그러나 우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마저 ()하게 하며 패망하게 한다.

②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임(13)

③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함(14a)

④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함,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14b)

**우매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치와 도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런 말은 곧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며 그 결과 자신을 파멸하게 한다. 우매한 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여 계속 말을 많이 한다. 장래 일에 관해서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⑤“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15)

***우매한 자들의 말에 대해 이야기 한 후, 본절에서는 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매자들이 하는 일은 스스로 그들을 ()하게 한다.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 즉 모든 사람에게 쉽고 친숙한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우매한 통치자로 인한 폐해(10:16-20)

본 단락에서는 통치자들의 우매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무질서와 혼란을 이야기하며 통치자의 무능으로 발생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다. 우매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과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됨을 비교(16,17절)한 이후 잠언 형태로써 게으름에 대한 경고(18절), 사회경영의 원리(19절) 및 권위에 대한 순종의 권고(20절)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매한 통치자와 지혜로운 통치자의 비교(16-17)

①“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16)

***‘왕은 어리고’, ❶육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❷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는 뜻이 있는데, 전도자는 한 나라의 왕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해 지혜롭지 못할 때의 ()을 언급하고 있다. 일국의 국사를 맡아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 허랑방탕하게 지냄의 결과는 곧 화로 이어진다.

②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17a)

③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음(17b)

***16절과는 달리 본절에서는 ‘귀족’을 그 생각과 행동, 품성 면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자로 표현하고 있다. 취하지 않고 필요한 음식만 먹는() 대신

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

(2) 게으름에 대한 경고(18)

①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샘(18)

**본절의 ‘집’은 ‘나라’ 또는 ‘왕궁’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왕과 대신이 게으르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일을 처리할 경우 그 나라가 망하고 파탄에 이른다는 경고이다.

(3) 사회 경영의 원리(19)

본절은 ‘희락’, ‘포도주’, ‘돈’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방탕하고 우둔한 대신들이 환락적인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과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마신다. 또한 ‘돈이 범사에 이용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①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19a)

②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19b)

③ 돈은 범사에 이용됨(19c)

(4) 권위에 대한 순종의 권고(20)

앞의 몇몇 구절에서는 왕(통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지만, 본절에서는 왕에게 함부로 불만을 피력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심중’은 마음의 은밀한 곳, ‘침실’은 집안의 은밀한 곳을 말한다. 남이 보지 않는 곳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왕에 대한 ()하며 왕과 부자(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있는 대신들)에 대한 반역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

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20a)

②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20b)

③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20c)

2.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자세(11:1-10)

본 장에서 전도자는 거듭 반복해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인생의 길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만 매일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전반부(1-6절)와,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대비하라고 권고하는 후반부(7-10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9,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장에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적 부귀와 영화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의 ()을 선택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 선행의 삶에 대한 권고(11:1-6)

전도서 결론부의 서장을 여는 본 단락은 잠언적 교훈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근면하고 구제하는 생활을 권고하고 있다. 전도자는 장래의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 남에게 베푸는 삶(1-3)

전도자는 해상 무역과 농사를 비유로 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❶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절한 ()을 베푸실 것이며, ❷ 자비와 ()을 베풀면 고난에 처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쌓으면 이내 그것은 좋

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무역을 하거나 배를 타고 건너가 가난한 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②“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언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2)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두루 ()을 베풀라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며 언제 재앙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넉넉할 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음으로 재앙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③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짐(3a)

④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을 것임(3b)

**인생은 삶의 곤경들을 통제할 수 없다. ‘구름’과 ‘비’, ‘쓰러진 나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과 재앙의 ()함을 나타내며, 언제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 평안하고 넉넉할 때 베풀 것을 강조한다.

(2) 최선을 다하는 삶(4-6)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서 전체에 흐르는 허무사함을 극복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①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임(4a)

②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임(4b)

**사람은 바람과 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완벽한 날씨 조건을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③“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5)

④“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6)

**전도자는 인간 행동의 불확실성을 말하며 자포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에 달려있으므로 인간은 ()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7-10)

앞 단락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도록 권고한 전도자는 본 단락에서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죽음과 최후 심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1) 현재적 삶을 즐기도록 권고(7-8)

전도자는 이 세상을 즐기는 삶에 대해 역설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외적으로 볼 때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도록 허락한 대목(7,8절)은 본 단락의 주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을 기쁨으로 수영하며 열심히 즐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①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임,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임(7)

***‘빛’이란 태양의 빛을 가리키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낙이란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지만, 주어진 생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앞 절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을 살 때 자족하는 가운데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②“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8)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되 역경과 죽음의 날들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하는 인생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2)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9-10)

전도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절제된 삶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생의 허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즐거움을 만끽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고 쓸모없음을 밝히고 있다.

①“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9)

②“그런즉 근심에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10)

*****본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를 통해서만 ()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❶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❷내세에 대한 소망이 지나친 나머지 현실 도피나 비관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❸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 살아가야 한다.**